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3월 29일(금)
--(음력 2월 20일)--
Пятница
29 марта 2024 г.
№ 12 (1207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시민들은 매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슬라와' 광장을 찾아 <크로쿠스>극장 테러의 희생자 추모하고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크로쿠스' 극장 테러의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사할린 주민들도 도울 수 있다

2024년 3월 22일 모스크바 도심 외곽에 있는 '크로쿠스' 대형 공연장에서 끔찍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는 3월 27일 현재 143명이다. 러시아 모든 지역에서 이들을 추모하여 테러의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다.

사할린 주민들도 크라스노고르스크 테러의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 지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보낼 수 있다고 사할린주 자원봉사연합회가 전했다.

<우리 함께> 전 러시아 활동 단체는 모스크바 외곽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 발생한 테러의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도 참여에 동참했다.

사할린주 자원봉사연합회 알렉산드르 네우스트로예브 회장은 "주민들이 우리에게 전화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공동성금을 모금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사할린 주민들의 모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테러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정보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명칭: 러시아 적십자사
개인 납세자 번호(ИНН)/세무당국 식별자(КПП): 7728014523/ 772801001
송금 계좌: 40703810100020000067
은행: 스페르뱅크
은행 식별코드: 044525225
은행 계좌: 30101810400000000225
송금 명목: <크로쿠스 시티홀> 테러의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적으며, 모든 후원 성금에 대한 정보는 '러시아 연방 우리 함께 (мы вместе.рф)' 공식사이트에 게시된다.

사할린 주민들과 외국인들은 매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슬라와(영예)' 광장을 찾아 장난감을 가져오고 꽃을 헌화하며 많은 사할린 동포들도 찾아오고있다. 지난 25일(월) 사할린주한인협회 및 사할린주한인청년회 회원들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본사 기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토마리 지역 방문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토마리 지역을 출장차 방문한 가운데 어떻게 아파트 진입로와 주택가를 정비할지 점검했다. 올해 토마리 지역에는 55곳의 아파트 진입로와 43곳의 주택가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그중 3곳은 '1000개의 주택가'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주요 보수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장병들을 지원하는 <사할린 우리 함께> 토마리 지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츠카 로스타(발전의 시작점)>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토마리 주민들과 만남에서는 도로건설과 보수공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에 올해 계획을 세우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29km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급한 것은 사흐초르스크 공항으로 향하는 서부해안 도로이다. 올해 이곳 두 구역에 총 15 km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완공할 계획인 가운데 크라스노고르스크와 파루스노예, 아나와 마을과 사이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생긴다.

이외에도 토마리 주민들은 주택 건설의 질과 보수공사, 의료 접근성 및 기타 문제들에 불만을 표했다. 2시간에 걸쳐 주지사는 40개의 질문에 거의 답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지사의 지시로 시행 기간도 설정됐다.

(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 주두마 창설 30주년

3월 27일에 사할린 주두마 창설 30주년 이 된다고 주두마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사할린주 입법기관은 1994년 3월 27일에 창설되었다. 그 사업 결과 약 3천 개의 지방법이 공포되었고, 1만4천 개의 법안이 발효되었으며, 700개의 회의가 조성되었다. 사할린 주두마에는 현재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20명의 의원은 전문 정규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할린주, 대조국전쟁 시기의 아이들에게 지원금 지급

대조국전쟁 승전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의 대조국전쟁 시기의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사할린 주정부가 전했다.

어린 시절 대조국전쟁을 겪은 아이들로서 현재 연금수급자들은 5월 9일 전승절에 5천 루블리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대조국전쟁 종전 시기에 18세 이하였던 러시아 연방 국민 <전쟁 시기의 아이들>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이다. '사할린주에서 대조국전쟁 시기의 아이들은 1923년 6월 22일부터 1945년 9월 3일까지 출생자로서 사할린 지역에서 상시 거주하는 국민이다.'라고 밝혔다.

사할린주에 코로나19 감염률 증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1주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26.5% 증가했다. 동시에 독감 및 급성호흡기질환 환자는 감소했다고 사할린주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사할린 지역에는 코로나19 환자 105명이 확진되었고, 확진자 중 연령 17세 이하는 18명이었다.

코로나19 증상의 대부분은 급성호흡기질환 형태로 감염됐고, 폐렴 증상은 4.8%이었다. 코로나19 환자의 82.9%가 경증을 겪었고, 중간 증상은 16.2%, 중증은 0.9%로 나타났다.

한편 급성호흡기질환 감염률이 감소한 가운데 6일간 2,630명 감염되어 전주보다 9.6% 낮아졌다. 감소율을 전 연령대에서 관찰되었으나 2세 이하의 영아들에게서 더 확연하게 관찰되었다.

2024년, 사할린 주에 이동문화센터 등장

올해 사할린주에 이동문화센터(차량 문화 클럽) 구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동문화센터는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다기능 문화 차량으로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촌락 및 교외에서 문화행사를 여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동문화센터는 공연, 전시회, 강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 및 오락행사를 개최한다. 스미르니흐 및 토마리 지역 주민들은 올해 차량 이동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창작에 빠진 창작인으로서 성장에 목마른 키오 야나

명과 같이 보인다.

풍경을 비롯해 '차가운 도자기'의 기술로 꽃다발, 꽃바구니, 딸기 바구니 등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40대 초반의 키오 야나는 사할린 동포 3세로서 외모도 수려한 여성이다. "제 성은 일본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많은 한인들이 일본 성으로 불렸어요.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 여권에 '키오 해(하) 웬(원) 열'이라 적혀 있었는데 저의 출생증명서에는 성으로 키오만 기록돼 있었어요."라고 야나는 설명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출생인 그녀는 제11호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할린기술전문대(폴리테크니쿰)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사실 야나는 이런 전공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아직 경제가 안정치 않았던 1990년대 말기-2000년대 초기여서 부모님은 이 전공을 반대를 하었다고 했다. 이 전공은 대륙에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 19세에 결혼을 하고 다음 해 첫딸을 낳으면서 이 꿈을 포기하게 되었고, 두 아이(딸, 아들)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좀 컸을 때 비로소 자기 계발을 생각할 수 있었다.

사실 남편이 사업가여서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편이었고, 마음에 드는 활동교실이나 원하는 교육을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술 활동교실에 신청했다. 류드밀라 아사블리나는 사할린에 잘 알려진 화가로서 야나는 그녀에게서 거의 5년간 강습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법에 집중했고, 나중에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해졌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서 그림 그리기 말고도 그가 현재 빠져 있는 두 개 기법을

취미로 익히게 되었다.

하나는 여러 모형의 진저브레드(생강 과자)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술교육과정에서 만난 한 분이 한번 진저 브레드를 가져왔는데 너무 신기해 이걸 자기 가족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졌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반죽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서 이것이 정말 잘 될지 몰라 지인과 함께 반죽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그 후 여기에 집중해서 만들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실패했고, 점점 기술을 익히면서 여러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해리포터'책에서 나온 호그와트를 제대로 진저브레드로 만들어 가족에게 내놓은 것은 비교적 성공했던 작품이다. 너무나 잘해서 가족은 이걸 먹기 싫어했다. 그래서 며칠 후 야나는 호그와트 과자를 직접 망치로 부서버렸다고 한다.

그의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생각과 자 작품은 '성 바실리 대성당'이었다. 야나는 성전을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었다. 3년 전에 이 작품 사진을 소셜네트워에 올려놓았더니 난리가 났다. 먼저 모스크바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이에 대해 취재하여 방송한 후, 이곳 사할린 언론에서도 취재에 나섰다.

최근에는 큰 명절에 1년에 한두 번 진저브레드 작품 2개(하나는 가족을 위해, 하나는 부모님을 위해)를 만드는데 연습할 때 하도 생각 과자를 많이 먹어서 요즘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차라리 팔아라'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바로 나갔더라고요."라고 야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또 하나의 그의 창작 분야는 '차가운 도자기'다. 역시 아사블리나 화가의 강습을 다니는 분이 한번 수업시간에 '올리브'를 가져왔는데 '차가운

도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때 야나는 처음 폴리머클레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올리브'를 입에 넣어 먹고 싶은 정도로 진짜로 보여서 이 창작에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일본 폴리머클레이로 하는 작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받았거든요. 진짜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식물학에 집중해야 했어요. 꽃의 구조를 잘 모르면 만들 수 없어요... 저는 한 가지 꽃의 부켓(모노부켓)보다는 다양한 꽃으로 구성된 혼합 부켓이 마음에 더 들어요. 그래서 꽃바구니, 열매, 버섯 바구니를 만들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야나는 말한다.

그는 어릴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는 그녀를 미술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음악학교에서는 8년이나 공부시켰다. 그래서 야나는 "왜 저에게 미술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라며 지금도 가끔 부모님에게 묻곤한다고 했다.

창의적 재능이 풍부한 그는 사진 찍기도 좋아한다. 이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사할린의 풍경을 엄청 좋아하는 그녀는 자연을 잘 즐긴다. 그는 하루 사할린 여행 혼자 또는 둘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으로 기분전환도 잘 되고, 생각도 정리되고,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다, 산, 하늘 등등, 원하는 대로 그리기를 좋아한다. 가끔 주문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땐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말고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그녀는 말한다. 창작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좋아하는 거다. 이에 대해 얘기할 때 야나의 눈에는 빛이 나온다. 그리고 그는 예술인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싶어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창작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 첫 15년은 재정문제

로 생각 없이 살았는데 딸이 고등학교가 되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여 야나는 마침 다른 지역으로 떠난 엄마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에 나섰다. 한편 아버지가 계속 돕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다고 한다. 생업이었기에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출근은 거의 매일 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창작을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사랑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에서 '창작인으로서'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그림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그의 주위 사람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키오 야나의 이름은 정말 알릴 만하다고 말들을 했다. 한 친구는 야나의 이름으로 국제 재능 프로젝트인 골든 타임 탠트(Golden Time Talent, 유네스코 후원) 경연에 신청을 했고, 야나는 작품만 올렸다. 이렇게 2020년에 그녀는 회화 부문에서 2등을 했다. 나중에는 이 경연대회에서 '또 한 번 참가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응했더니 2022년에 그는 21세-50세 연령대 미술분야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연은 우선 원격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이를 주최하는 유럽 국가들(2020년 이탈리아, 2022 영국 런던)에서 하는데 2020년 19코로나로 인해 시상식은 아예 없었고, 2022년에는 특수 군사작전때문에 런던 시상식에 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야나는 언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할린에 대한 개인전을 열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뭐든지 가능하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참가 신청자 수로 <2030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 프로그램> 상위권에 들어

<2030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 프로그램>에 참가자 수 순위 상위권에 사할린주가 올랐다 제 3차 참가에 전국 각 지역에서 4586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세웨로-쿠릴스크 행정부가 전했다.

이 프로그램 65명의 우승자들은 국가기관 및 극동지역들의 사업을 위한 전체과정의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2030 - 무라비요브-아무르스키> 프로그램은 세계적 경쟁 속에 어려운 상황과 경쟁력의 여건에서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 регионов по количеству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 2030»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в рейтинг по количеству регистраций на программу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2030». Всего на участие в третьем потоке было подано 4586 заявок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Отметим, что 65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граммы смогут пройти годов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полным погружением в работу госструктур 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грамма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2030» призвана подготовить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лидеров, способных

обеспечить устойчив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региона в условиях конкуренции и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프ार्ट니짜' 방송채널의 <셰프 경연>에서 사할린 출신 보체나 코벨레와 우승

러시아에서는 아주 드문 '카오 소이' 태국 수프를 조리할 줄 아는 사할린 출신 보체나 코벨레와 (23세)가 '프ार्ट니짜(금요일)' 방송채널의 제 3차 <셰프 경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방송국 홍보실이 전했다.

보체나 코벨레와는 콘스탄틴 이블레브티모로 들어갔다. 이 쇼는 콘스탄틴 이블레브와 레나트 약자모브 셰프들간의 요리 투쟁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팀을 모집하여 참가 팀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누가 최고의 요리사인지 경쟁한다.

"나는 사할린에서 태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고 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중이다. 나는 거리에서 태국 할머니 누구에게나 다가가 이리저리한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눈물로 우승의 기쁨을 사할린에서 온 가족에게 바쳤다.

Сахалинка Божена Кобелева победила в «Битве шефов» на «Пятнице»

23-летняя сахалинка Божена Кобелева, умеющая делать редкий для России суп «Као Сои», одержала абсолютную победу в «Битве шефов» на телеканале «Пятниц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телеканала.

Божена Кобелева состояла в команде Константина Ивлева. Шоу построено на кулинарной борьбе шефов Константина Ивлева и Рената Агзамова. Набирая команды, они учат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ству и соревнуются, кто круче готовит.

«Я род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живу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Я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ер, иллюстратор. Люблю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миру. Знакомлюсь с разными кухнями. Могла на улице подойти и спросить, как готовится то или иное блюдо у какой-нибудь тайской бабушки», - поделилась она.

Свою победу девушка со слезами на глазах посвятила семье с Сахалина.

2024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초등학교에 3천여 명 입학

2024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초등학교 입학생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청이 전했다.

학부모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27개 학교 중 한 곳에 자녀의 입학등록을 할 수 있다. 입학신청서 제출은 2단계로 이뤄지는데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 구역 인근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되고, 2차 단계는 6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등록이 계속되어 이 시기에는 다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학등록 신청은 '고스우슬루기'(국가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나 'E-서비스. 교육'교육서비스 포털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 등록,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전화번호 312-687 (추가. 3), 312-687 (추가. 1)로.

(8면에 계속)

사할린국립대, 한국 교육과 사회를 주제로 올림피아드 진행

지난 3월 22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과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주최로 5학년-11학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과 사회> 상식 경시대회가 열렸다. 이에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2개의 교육기관의 학생 136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90분간에 한국 전통사회에서 사회 제도로서 가정의 진화,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 등에 대해 필기로 답했다. 5-8학년생들은 32개의 문항에, 9-11 학년생들은 42개의 문항에 대해 대답했다.

또한 경시대회 일환으로 나전 칠기 활동교실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개로 만든 디자인과 문양으로 열쇠고리, 반지, 휴대폰 받침대 등을 장식할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라는 사회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취재: 이예식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세족 / 조명

바다가 섬의 발을 씻어 준다
돌밭툼 밑
무좀 든 발가락 사이사이
불 꺼진 등대까지 씻어 준다
잘 살았다고
당신 있어 살았다고
지상의 마지막 부부처럼
섬이 바다의 발을 씻어 준다

"아내가 제 발을 씻겨 준 일을 떠올려 보니, 없습니다. 제가 아내의 발을 씻겨준 일, 없는 것 같은데요. 스무 해가 뭐야, 이제 곧 스물 다섯 해를 함께 겪게 되는 결혼 생활. 어디 가서 자랑할 만



큼 서로 애뜻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참 잘 맞는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을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전 좋았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물론 좋구요.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아내 역시 제게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아닐 수, 있겠네요. 그간 소소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사귄 게 제가 좀 많거든요. 욕 먹어도 쓴 놈이 저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왜냐? 저는 아무진 녀석이니깐.

<세족>을 음미하면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이 집니다. 밀물과 썰물, 저는 파도를 보면 마블링 끝내주는 삼겹살이 떠오르는데, 제 주도 오겹살. 맥주 거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맥주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가 쪽에 자리한, 벽면에 수도꼭지들이 잔뜩 있고, 원하는 종류의 맥주를 주문하면 직접 따라주는 거기 호프집 맥주 맛이 끝내 주는데. 아 참! 이런 경박스러운 제 생각을 꾸짖기라도 하려는 듯, 시인은 바닷바람처럼 소금 때 낀 살 짙은 목소리로 애뜻한 부부를 떠올립니다. 세족. 서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라니.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리저리 온갖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요. 저 역시 그랬으니. 내뽐은 그 언어만큼 아내를 아꼈느냐. 이걸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지요.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제 아내의 생명이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다는 걸 깨닫게 된 시점입니다만, 서로 세족을 나누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간지럽게만 느껴지네요.

아,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건지. 이 무좀의 상태도요. 상대방에게 들이대기 겸연쩍은 걸 넘어, 미안함을 넘어, 괴로울 수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 발이 그렇다는 소리지요. 이게 어느 정도나. 제가 예전에 태국 방콕 '짜짜짜 시장'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저렴한 물건들만 파는 곳이니 온종일 걷고 또 걸었던 거죠. 그 미로같은 곳을. 그러다 발견한 곳. 오호라, 발만 맛사지해주는 노천 마사지라. 우리 돈 4천원이면 30분간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 때도 미안해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아, 좋긴 좋았지요. 2만보는 족히 걸었던 발이니,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죠, 흠. 다만 무좀. 제 무좀 핀 발바닥이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입은 또 해에 좋아서, 그 때 뭉개구름마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느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세족'보다는 함께 목욕하는 게 좋던데. 거품 목욕. 어우 야, 이런 미친! 얘기가 왜 또 이런 쪽으로 흘러온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멀리 왔습니다. ㅋ."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러시아 50개 지역들의 드론 활용 국민교육 첫 선발전 개최

3월 26일 전국 50개 지역들이 <2024 아르히펠라(군도)> 집중 기획-교육으로 지역 자체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간 드론활용의 계획안을 시험운영할 권리를 두고 계속 경쟁하고 있다고 국가기술선도대학 플랫폼 측이 전했다.

이 부분의 선두지역들로는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알타이 변경, 캅카스 변경, 벨고로드주, 모스크바주, 노위시비르스크주, 사할린주, 툴라주, 세와스토폴 등이다.

'바스(BAC무인 항공기)회사의 회장인 알렉세이 와라트첸코는 "훈련에 참가할 지역팀 선발 구조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첫 단계는 지역단계로서 국가기술선도대학과 공동으로

우리는 행정자치지역들을 위해 시급한 계획안 설정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규모를 위해 87개 행정자치지역들 중 지역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 단계로 진출할 50개 지역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와라트첸코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 선발 단계는 표준규정에 따른 지역의 적합성, 그중에서 지역에서 바스(BAC)산업의 재정 및 과학적 생산센터의 작업 현실과 실태, 지역에서 무인기산업의 운영 실태, 합법적 시험 정책과 그 상태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있다. 최종단계에서는 비행을 실행하고, 심사위원과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사할린의 실제 상황에서 바스(UAS무인 항공기)적용 계획안을 시험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인기 산업개발을 위한

최대한의 관심과 집중을 보여준 팀들이 출전하게 된다.

드론활용의 계획안 시험운영에 따른 대규모 훈련이 여름에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7월 8일부터 21일까지 <2024 아르히펠라> 집중 기획교육이 개최된다. <2024 - 아르히펠라>에서 드론활용 계획안에 따라 실제 과제들을 시험하면서 얻은 결과들은 무인 항공기에 대한 연방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된다.

<아르히펠라>은 공학팀, 과학기관, 대학, 기업, 전국 정부기관의 대표들이 연합하는 연례 집중 기획교육이며, 포럼의 공동주최자는 국가기술선도(НТИ) 2035고등교육 기관이다.

사할린주,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장병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 전달

사할린주는 특수군사작전 지역의 사할린 장병들에게 장비와 보급품을 전달했다. 향후 이 지역으로 경량 오프로드 차량과, 소형 굴착기, 방폭담요, 드론탐지기, 전투군 방어장비 및 보급품을 보낼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장병들의 복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군 사령부 대표를 만난 가운데 "우리의 장병들이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군 지도부와 지속적인 접촉 속에 정기적으로 이들을 돕고 있다. 이 일에 공공기관과 기업이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당한 대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리의 장병들이 속히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한 보급품은 최근 조국수호 장병들에게 전달된

가장 규모가 큰 물품 중 하나다. 동원병과 자원병들 지원에 사할린 지역의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대학생들, 스포츠인들, 청년 및 사회단체, 정치인들, 기업인들과 제품 생산자들, 정부기관과 법무 및 행정기관 모두가 전장에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모았다.

여성들은 따뜻한 옷을 재봉하고, 뜨개질하며, 학생들과 유치원생들까지도 편지를 쓰고 그림엽서를 적으며, 수호부적도 만들고 있다. 편지 속에서 장병들은 동포의 응원과 사랑을 보며, 군 장병들과 그 하는 일을 믿어주는 동포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특수군사작전 처음부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사할린주에서 <동참> 기획이 실시되고 있어 이 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지역에서 떠난 장병들은 자신의 친지들로부터 관련 소포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사할린한인사('우리 가족' 주제 포함),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콩쿠르조직위원회**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сем Бессмертным Бойцам СВО посвящается!

...Чтобы жить и любить

Содрогнулась земля от залпов стволов
Ночь огнями мгновенно запылила
И вскипает опять откуда-то зов,
От которого жизнь понятнее стала...

припев: Поднимаюсь под пули, марш-бросок между мин
Автомат раскалённый, руки жжёт магазин
В этой схватке с врагом должен я победить
И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 чтобы жить и любить!

Звериным прыжком он влетает в окоп,
В нём ярим мечом стала просто лопата
Две жизни, как пули, рванулись в лоб,
Но вороном вражьем к ним пала граната

припев: Рвётся тут же граната: я с врагом, не один...
Автомат раскалённый, пусть уже магазин
Только в схватке с врагом должен я победить
И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 чтобы жить и любить!

Морозный рассвет: гарь повсюду и кровь
«Жив боец, я нашла! Но времени мало...»
И тащит в рассвет хрупкопечая вновь,
Он тенью лишь губ повторял всё сначала

припев: Поднимаюсь под пули, марш-бросок между мин
Автомат раскалённый, руки жжёт магазин
В этой схватке с врагом должен я победить
И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 чтобы жить и любить!

припев: Поднимаюсь под пули, марш-бросок между мин
Автомат раскалённый, руки жжёт магазин
В этой схватке с врагом должен я победить
И вернуться живым, чтобы жить и любить!

ТЭХО Чан

24.03.2024 г.,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ппозиционная партия дышит в затылок правящей

Сеул, 24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86 кандидат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для участия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10 апре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что подготовило почву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которое может определить, как нынешня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едет оставшиеся три года у вла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одсчитанные данные показали, что 38 партий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места с пропорцион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Фактическое количество партий, участвующих в выборах, возможно, изменится после оценки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ей. У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народной власти (PPP)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ьше всего кандидатов — 252, за ней следует основн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DP) — 244. Всего 56 кандидат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как независимые.

Официальн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начнется 28 марта и продлится 13 дней, при этом до начала офиц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кампании допуск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е формы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Голосование за рубеж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 27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состоится 5-6 апреля.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то, как поведут себя недавно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партии,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ая инновационная партия во главе с опальным бывшим министром юстиции Чо Кюном, Новая партия реформ во главе с бывшим лидером ПНП Ли Чжун Соком и Партия нового будущего (Смираэ) во главе с бывши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Ли Нак Еном.

Сборник стихов Ким Хе Сун удостоен награды NBCC

Сборник стихов 69-летн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этессы Ким Хе Сун «Крылья фантомной боли»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руга книжных критиков США (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s - NBCC).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состоялась 21 марта в Нью-Йорке. Ким Хе Сун стала первой корейской, удостоенной данной награды. «Крылья фантомной боли» - десятый сборник поэтессы. Он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РК в 2019 году, а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публикован в США издательством New Directions Publishing в переводе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этесс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Чхве Дон Ми. Газета New York Times назвала его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поэтических сборников 2023 года. Прем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руга книжных критиков США присуждаются с 1975 года книга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шести категориях: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поэзия и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KBS World

Школьники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пр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Кореи

22 марта 2024 год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олимпиада СахГУ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Ее темой стала "Коре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В олимпи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30 учащихся 5-11 классов из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частникам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эволюции семьи как соци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традиций семей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Корее, а также института семь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т.д..

Такж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оя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декорирования изделий узорами и рисунками из перламутра с лаковой обработкой. По технологии "наджон чхильги" ребята нанесли лак и ракушки на брелки, кольца попсокет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то: Ли Е Сик

Сахалинку Софию Мейер наградили за спасение людей при теракте в «Крокусе»

Сахалинка София Мейер награждена медалью за спасение людей во время теракта в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фии Мейер вручили медаль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бществом»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е РФ. Девушке удалось спасти десятки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ились в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е» во время теракт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евушк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россиян за добрые слова и поддержку.

«Огром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мне звонят, пишут и поддерживают. Это очень ценно в тако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Желая скорейшего выздоровления пострадавшим. Держитесь! Мы справимся. Наш народ очень сильный», - отметила сахалинка.

Президент ТПП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Дзюба отметила, что поступок хрупкой девушки

по-настоящему героический. Она смогла не потерять самообладание в экстрем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и помочь выйти из помещения нескольким потокам посетителей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который атаковали террористы.

«София является дочерью нашего члена ТПП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иректора ООО «УглегорскУголь» Евгения Валерьевича Мейера. И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семью за достойное воспитание!» - сказала Галина Дзюба.

История героического поступка Софии Мейер покорила россиян. Девушка трудилась в каче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ора в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е». Когда людей одолевала паника, она смогла успокоить зрителей и эвакуировать их из лож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и фойе. Она выводила всех, оперативно подбирая к дверям необходимые ключи. В ходе спасения



ФОТО: ТПП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чередной группы София услышала приближающиеся звуки автоматной очереди и устроила баррикаду. Ей помогли мужчины.

София Мейер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на Сахалине. Она семи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региона по бальным танцам. Девушка и сейчас часто приезжает на остров,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судостроителей смена лидера

Сеул, 23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и обогнали Китай по объему заказов на поставку судов в феврале и заня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По данным Clarkson Research, брит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по анализу рынка судостроения и судоходства, в феврале мировые заказы на суда составили 3,4 миллиона CGT (100 судов), из которых Южная Корея выиграла 1,71 миллиона CGT (28 судов). Рост заказов трех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удостроителей продолжился 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удостроения.

На фоне роста цен на суда компания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KSOE) недавно получила заказы на четыре танкера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LNG), дв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танкера, два танкера для перевозки сырой нефти гигантских размеров, два танкера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жиженного нефтяного газа (LPG) средних размеров и четыре танкера для перевозк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заказов только на эти суда составляет 2,7218 триллиона вон (2,053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Samsung Heavy Industries сосредоточилась на получении более выгодных заказов, выиграв

заказ на сумму 3,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на 15 танкеров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объемом 173 000 кубометров и заказ на танкер-шаттл из Катара. Ранее Hanwha Ocean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заказы на два очень больших нефтеналивных танкера (VLCC) и два очень больших танкера для перевозки аммиака. Общая сумма заказов за два месяца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51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Два очень крупных нефтеналивных судна получили самый высокий объем заказов за 16 лет.

Отраслевые инсайдеры ожидают, что три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удостроителя столкнутся с бумом новых заказов, поскольку судоходные компании стремятся заменить устаревшие суда 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ужесточением экологических норм. Заказы на перевозк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на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и, выросли на 6 процентов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до 265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в то время как цены на VLCC и сверхбольшие контейнеровозы выросли на 6,6 процента и 10,2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удостроителям дан зеленый свет в достижении их бизнес-целей на 2024 год.

В Сеуле бастуют водители автобусов

28 марта с 4 часов утра профсоюз водителей автобусов Сеула начал забастовку. На маршруты не вышли 7.200 автобусов. Решение о забастовк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руководство профсоюза не смогло договориться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Ассоциации операторов автобусных перевозок о повышении зарплаты водителей. Профсоюз требует повысить зарплату на 12,7%, урегулировать систем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плат и отме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ю в оплате труда для в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по контракту после наступления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Операторы предлагают повысить зарплату на 6,1%, но профсоюз не согласен с дан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Переговоры продолжаю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увеличена частота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метрополитена, а его работа продлена до двух часов ноч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25 районов ввели временные автобусные маршруты для быстрой доставки пассажиров к станциям метро. Движение автобусов, соединяющих город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но с Сеулом, а также внутрирайонных автобус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может прекратить действие Базо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Сеулом

На следующей сессии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ожет быть прекращено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примирении, ненападении, обменах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от 1991 года. Его называют также межкорейским базовым соглашени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8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базовым соглаше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определялись как «особые отношения», сформировавшиеся в процессе стремления к воссоединению, а не как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призвал пересмотреть Конституцию КНДР,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главного врага» и закрепи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олностью оккупировать» её территорию в случае войны. В феврале Пхеньян прекратил действ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предстоящей сессии из конституции могут быть убраны поло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мирным воссоединением, и заново определены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границы страны. Недавно Пхеньян удалил изображ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 своих основных сайтов и исключил фразу о единой Корее из текс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Началось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за рубежом

С 27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проходит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22-го созыва,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избиратели,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избиркома, для их провед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220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в 115 странах, которые открыты с 8 до 17 часов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Для участия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147.989 избира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Это на 14% мен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и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0 году.

В РК хотят разрешить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Разрешение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меть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им из путей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Ким Чжин Пхё, выступая 19 марта в Лондоне перед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РК всё сильнее ощущается нехватк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а население стареет из-за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Одним из способо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является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для 7,5 млн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РК.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может повысить их экономи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 добавил Ким Чжин Пхё.

Пхеньян против резолюции ООН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решительно осудил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в Совет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о сообщению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от 24 марта, миссия КНДР при Отделении ООН в Женеве назвала резолюцию «серьёз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провокацие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США и другими враждебными силами в своих интересах».

Подобные «резолюции» - это не что иное, как «тщательно спланированный заговор». Они противоречат целям и принципам Устава О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м уважени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о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оект резолюции представила Бельгия.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К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его подготовке в качестве соавтора.

Профессора медицинских РК вузов подадут заявления об отставке

25 марта профессора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чали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я об отставке, выступая против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увеличению приёма студентов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офессора 19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том числе,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рё и Ёнсе.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коллективном заявлении профессоров,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абитуриент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на две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абитуриентов по университетам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гнорирует мнения врачей, легкомысленно относясь к жизн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дей».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плана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одолжающийся кризис не может быть урегулирован.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зовет свой план, мы готовы обсудить все нерешённые вопросы»,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 20 февраля более 90% из 13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не вы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выступая против 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величить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Это нарушило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КИ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Путину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терактом в «Крокусе»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терактом в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е» в Красногор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на сайте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в воскресенье, 24 мар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НДР уважаем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23 марта направил телеграмму с соболезнованиями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Путину», - цитирует ЦТ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 частности, Ким Чен Ын выразил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и пострадавшим. По его слова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неприемлемы в любой форме и никогда не могут быть оправданы.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арод КНДР испытывает чувство солидарно-

сти с российским народом и надеется, что в РФ смогут преодолеть последствия этой катастроф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 телеграмме отмечено, что пози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выступающего против всех форм терроризма неизменна, а варварскому теракту, угрожающему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не может быть оправдания.

«Наш народ считает несчастье и горе дружеств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а своей болью и выражает крепкую поддержку и солидар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му делу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а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плочен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округ Вас, для защи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страны», - подчеркнуто в телеграмме.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МИ)

Южная Корея выразила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и поддержку народу России

Как официальные власти, так и различ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быстро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произошедший в Москве чудовищный теракт, выразив слова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народу России.

Еще в субботу 23 мар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пространило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выразило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чудовищно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атаки в московск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рокус Сити Холл".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зделяет скорбь российского народа", выразив надежду, что "в ходе оператив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будет точно установлено, кто стоит за данным инцидентом".

Ведущ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сделала официа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в связи с терактом. "Нас переполняет шок и гнев от новостей об акте террора в отношении невинных мирных граждан. Наша партия скорбит о жертвах произошедшего. Передаем слова утешения росси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российскому народу в их скорби", - заявил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артии Кан Мин Сок.

В посо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уле сообщили, что и простые люди - как корейцы, так 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граждане других стран - приносят цветы, зажигают свечи из здания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выражают слова солидарности с российским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Сеуле

народом в его боли. "Мы искренне говорим спасибо каждому из вас. Ваша поддержка в этот тяжелый для страны момент бесценн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в соцсетях.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посольстве открыта книга соболезнований, где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лично оставить свое послан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Банк переходит на многоязычную поддержку клиентов

Сеул, 22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тремясь предлагать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ые услуги для различ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бществ в Южной Корее, банк Napa начал выдавать моби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сертификаты на 16 языках через свое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NapaEZ, эксклюзивно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Банк заявил, что впервые отечественный банк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оддержку 16 различных языков для выдачи финансов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Целью новой услуги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удобства транзакций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 этом банк позиционирует себя как ведущий банк в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уникаль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иностранных сообществ в их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ертификат не только подтверждает финансовые транзакци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но и позволяет выполнять различные задачи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не связанные с личными данными,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ся в более чем 170 учреждениях, включая Национальную налоговую службу и Национальную службу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Napa Bank заявил, что он первым сред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банков разрешил иностранным клиентам,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 только номера своих паспортов для финансовых операций, обновлять номера своих регистрационных карточек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очки на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более 90 дней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ещения офлайн-отделения.

«Благодаря многоязычной поддержке выдачи сертификатов Napa и онлайн-сервису смены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х номеров иностранцев мы ожидаем увеличения преимуществ и финансового удоб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клиенто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анка.

Недооцененные таланты женщин-писательниц

Сеул, 24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Роман Мирины Ли «8 жизней столетнего трикстер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женскую премию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з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что стало первым случаем,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втор был номинирован на эту награду. Роман, исследующий сложную современную историю Кореи, повествует о жизни неназванной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которая берет на себя различные роли — от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побега и убийцы до шпионки и матери, переплетая восемь отдельных, но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историй.

Путь Ли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признанию столь же уникален, как и у главной героини ее романа. Ли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в Сеуле, перешла с р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английский, обретя свой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й голос на втором языке. Ее роман не только отражает е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путь, но и отдает дань уважения ее двоюродной бабуш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еребежнице, история жизни которой перекликается с бурными событиями, описанными в книге. Сейчас Ли проживает в Гонконге, и ее литературные достижения начинают находить отклик во всем мире. «8 жизней столетнего трикстера»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издательством Virago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 мае 2023 года, а затем в США в июне 2023 года и будет переведен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дательством Wisdom House.

Короткий список из шести названий женской премии з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будет объявлен 24 апреля, а победитель — 13 июня. Женская премия з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литературу, учрежденная в 1996 году, отмечает литературный вклад женщин. 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отсутствия женщин, номинированных на престижные литературные награды. В этом году в лонг-лист вошли 16 роман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написанных женщинами из разных слоев общества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и работу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и работу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вопрос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сегодня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АТ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коро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едут отдыхать в летние лагеря. Важно, чтобы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тдых и оздоровление наших детей,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бят,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реализуемых мерах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региона.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адлежащего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ручено, например, обеспечить исправность и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рамок металлодетекторо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регулярность тренировок по проверке готов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ивлекаемых охранных структур на объектах к действиям при угрозе совершени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АТК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состоянии работы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идеологии терроризма, идей неонацизма и различных деструктивных дви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онкологи внедряют новые виды операций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онкологическую операцию внебрюшным способом при раке почк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московских коллег мест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своили малоинвазив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на пораженном органе.

Сахалинские онкологи регулярно обучаются новым техникам 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дущих клиник России. Ряд операций по удалению опухолей предстательной железы врачи ур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выполнили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пециалис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научно-клин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ФМБА России Андрея Санжаров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он вернулся снова.

– Приезжать на Сахалин всегда приятно. Ваши врачи – настоя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операционные оснащены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С каждым приездом заметен рос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статэктомия, которую мы проводили в прошлом августе, сейчас поставлена на поток. К такому же результату мы надеемся прийти в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ой цистэктомии – малоинвазивной операции по удалению кисты или доброкачественной опухоли яичников, – рассказал Андрей Санжаров.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в этот раз – также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общей хирургии Перв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И.М. Сеченова, профессор Эдуард Галлямов.

Изучение новейших методик идет параллельно в двух операционных, на двух эндовидеохирургических стойках. 3D-изображение позволяет хирургам более точно работать с внутренними тканями, а пациенты выписываются уже на 5-6 сутки после операции.

– Вчера мы провели операцию на почке внебрюшным доступом. Обычно для этого приходится заходить через живот. Новая техника позволяет сразу остановить почечный кровоток и качественнее удалить опухоль из органа. Сегодня нас ждут ещё три операции, – рассказал Эдуард Галлямов.

Онкологическая служб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 развиваться.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еще сер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 летом в диспансер снова приедут коллеги из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ов. Также врачи ожидают внедрение в диспансере ПЭТ/КТ – эффективного и современного метода диагностик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Развитие онкослужб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здравом задач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не выезжая на материк.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ют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на 350 машин

В этом году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а откроют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где будут базироваться городские и пригородные автобусы. Максимальная вместимость объекта – 350 машин. Специалисты смогут выполнять здесь все виды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ремонта техник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создадут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ты. 21 март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строительную площадку будущей транспортной базы.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временного автобусного парка был поднят н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стреч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работниками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нас –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ый комфорт водителей городских и пригородных автобусов.

Это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слу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и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абсолютно все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работник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ли просторную столовую, душевую, комнату отдыха. Второй важный момент – мы меняем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приобретая машины, работающие в том числе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м удалось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обновить технику. А теперь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пании ка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луживать машины на новом каче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мы начали транспортную реформу. И н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стреч с работниками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губернатор пообещал, что современный автобусный па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Причем речь тогда шла про 2025 год. Как видите, стройка завершается со значительным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Также к автобусному парку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подъездная дорог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асфальт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 отмети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Новое автотранспор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в юж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автобусном парке можно будет обслуживать до 350 единиц подвижного состава.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орпус с ремонтными мастерскими на 20 постов, трехэтаж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й блок, открытая стоянка автобусов, автомойк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на площадке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монтажу газовой котельной и наружного газопровода, пожарных резервуаров. Выполняется устрой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инженерных систе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бытового корпуса, внутренняя отделка помещений.

Заверш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монтажу наружного навесного фасада, вентиляции,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и второго подъема.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выполняются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зданий моечного корпуса и ремонтно-механического цеха, устройству подъездной дороги. Всего на площадке работают 46 человек, 7 единиц техники.

– Помню встречу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ждался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автобусного парка. Даже не верилось, что такой объект можно построить так быстро. Обсуждали это с коллегами, сомневались и спорили. Но сейчас видим, что обещание выполнено. Это здорово. Здесь будет все, что нам нужно. К примеру, в комнате отдыха мы сможем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между рейсами. А это час-полтора, – поделился эмоциями Святослав Савченко, начальник автоколонны №2 АО «Транспортная компания».

Все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на нов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е будут оцифрованы – это оформл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го путевого листа, выдача и списание запчастей, электронный учет режима труда и отдыха водителем состава.

Транспортная база придет на смену старому парку на Пограничной, который построил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прошлого век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ъект снесен.

Сегодня в структур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250 автобусов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большого класса.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существенно обновится. При выборе новой техники приоритет отдается транспорту, работающему на голубом топлив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го автобусного парка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ой заправк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активом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перспектив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оздание портов в Корсакове и Поронайск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дали интерес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и по ним губернатор д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влиятельный деловой союз и надежный партне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адач. Совместно с дел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овлечению в бизнес молодежи. В том числе,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удалось выйти на первые строчки рейтинг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регулярные встречи и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с бизнес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сегда ждут этого разговора. Мы стараемся задавать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конкре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но и системные вопросы, затрагивающие всю область. Во время нашей прошлой встречи бизнес оставил пять обращений, они были проработаны и получили ответы,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Дзюба.

Дел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ось у главы региона развитием островных портов. Губернатор сообщил, что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уже завершен,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экспертиз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Поронайского порта, где основной упор будет сделан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углеводородов.

–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тановится самым коротким путем с запада на восток и крупнейшим логистическим коридором. И два наших островных порта станут важными точками на этом маршруте. Логистика – одно из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За год мы привлекли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свыше 305 млрд рублей.

Губернатор рассказал деловому сообществу также о развити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6 году должен быть сдан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ахалинТех. Но науч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начинаю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уже сейчас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бизнесом.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директор ООО «Газобетонный завод» Сергей Чен задал вопрос о газификации сво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жен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 осени этого года.

Финансовый директор одного из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Юлия Козак обратилась с просьбой о выделении 500 га земл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егодня стадо насчитывает 414 голов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в планах – увеличить поголовье на треть. Для выпаса животных, заготовки кормов и развития хозяйства нужны еще земл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едложили предприятию рассмотреть участки в селах Огоньки и Высокое.

55 подъездов и более 40 дворов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в 2024 год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Томаринский район проверил, как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В доме №8 на улице Ломоносова преобразили три подъезда. Здесь выровняли, оштукатурили и покрасили стены. Жильц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в их доме ремонт не делали десятилетиями.

– Теперь чистота и красота – стало приятно зайти. А раньше просто страшно было. Я сама – бывший строитель, и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бригада сделала все качественн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Томари Галина Качкан.

Всего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55 подъездов и 43 двора. Из них три отремонтируют капитально,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1000 дворов». Остальные преобразят благодаря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 В этом году мы завершаем масштаб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ремонту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Мы хотим создать уют в каждом доме, чтобы люди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комфортно.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родолжим уделя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Сделаем здесь красив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набережную и снесем ветхие постройки, которые портят вид,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дъездов – 4 тысячи. Задача на этот год – не менее 3 тысяч. Косметическим ремонтом будут охвачены вс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в этом нуждаются. То же самое касается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Те дворы, где не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рамках текущих работ.

Ремонт в подъездах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белку и покраску стен и тамбурных дверей, замену и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ерил, установку почтовых ящиков, монтаж кабель-каналов для проводов.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ям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возмещают половину затрат. В 2024 году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е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400 млн рублей.

По предложениям самих жильцов 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ш двор. Наш подъезд» от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проводи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одъездов. В некоторых дом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 оформляют стены, высаживают комнатные растения, развешивают картины 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предметы декора. Самые креативные и необыч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одъезд образц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 эт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позвонив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по номеру *0065 или обратившись к депутату своего округа.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Томари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изучил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Сейчас на площадке иду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Здесь сделают деревянный настил, обустроят лестницу для спуска к морю, установят беседки, скамьи с навесом, спортивную 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и. Территорию озеленят, высадят газонную траву и кустарники. Также на набережно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арковка, модульный туалет, контейнерная площадка, системы наружного освещения и охран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к 1 сентябр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3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

사단법인 너머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 장학사업 올해 청소년 5명, 대학생 15명, 청년 2명에 장학금 총 7,200만원 지원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는 3월 18일 오후 6시 안산 빅토리아에서 '제3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1년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장학기금 후원으로 시작된 '고려인 꿈너머 장학사업'은 모국에 돌아온 고려인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미래인재 육성 ▲돌봄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이중언어 교육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진학 및 진로 지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사업이다.

꿈너머 장학금은 고려인동포들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장학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포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학업성취도와 비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려인동포 청소년·청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생 15명, 청소년 5명, 청년 2명(향후 선발)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7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사)너머 신은철 이사장을 비롯해 후원자인 조영식 SD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부인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김효진 경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공동모금회 W아너 등의 내빈과 50여명의 고려인동포 장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신은철 (사)너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포 청소년·청년들이 과거 고려인동포 선조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빛나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복순 시크리티스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매년 발전하는 꿈너머 장학생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려



고려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너머는 3월 18일 오후 6시 안산 빅토리아에서 '제3회 고려인 꿈너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너머)

인동포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선발된 꿈너머 장학생들을 대표해 박연화 양(한양대 재학)과 최 아르툰군(봉일천고 재학)이 편지 낭독을 통해 감사와 포부를 전했다. 박 양은 "꿈너머 장학사업으로 도움을 받은 이상으로 주변을 돌보고 베풀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했고, 최 군은 "주변의 약자와 모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생들의 감사편지 낭독 후 유복순 대표와 신은철 이사장 등 내빈들과 장학금 선정에 참여한 장학위원들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장학증서를 받은 장학생들은 단상에 올라 함께 장학생 선서를 통해 "꿈너머 장학생으로서 모국과 조국 사회 모두에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년인턴십 시행

국정 참여 기회 확대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획 내달부터 21개 공관서 6개월간 근무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외동포 청년(20~34세) 인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재외동포 차세대가 동포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세대교체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한인공동체의 우수한 인적 자원인 재외동포 청년을 국가 차원에서 유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기획된 사업이다.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올해 인턴십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독일, 카자흐스탄 등 13개국 21개 공관에서 24명의 청년이 참여한다.

청년들은 이 기간에 거주국 재외공관별 상황에 따라 과업(△정무 △경제영사 서비스 △홍보·문화 등)을 수행하며, 특히 국정 참여 기회가 가능한 업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참가자들은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보수(현지 사회보장지원비 포함)와 사전 교육비 등을 공관에서 받는다.

재외동포청은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11월경 진행하고, 평가 후 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인턴십은 재외동포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은 재외동포정책의 핵심목표인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유능한 청년들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프로젝트

안산의 이웃들, 세월호의 기억 품고 함께 산 10년 시민의 기록전 〈마을의 4.16〉 개막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족과 이웃들은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동행했다. 특히 안산에 사는 주민들은 각 동네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가족들의 곁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활동들을 이어 갔다.

세월호 참사 10년. 그 동안 세간에서 잊혀져 가는 듯 여겨진 4.16의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계승하며 살아 온 마을들을 조명하는 시민들의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가 열리는 '4.16기억전시관'은 단원고등학교와 가까운 고잔동 상가의 3층에 자리잡은 전시 공간이다. 여기는 생전 학생들이 PC방을 이용하러 자주 드나든 곳

이다. 별이 된 학생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그들의 발자취를 느끼며 기억할 수 있다. 이 전시관은 2015년 4월, 세월호 기록전시회 〈아이들의 방〉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해마다 2~3번의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관을 찾은 발길이 뜸해졌다. 이 기억공간을 다시 살리고자 모인 사람들이 시민의 기록전 〈마을의 4.16〉을 기획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2024년 3월~5월, 전시를 통해 4.16정신을 다시 소환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시도한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5개 마을 (상록구 일동, 사동, 반월동, 단원구 와동, 고잔동)은 각 마을활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물품, 마을 인터뷰로 전시를 꾸린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시 마을 세부 내용〉 참고) 전시관에는 노란 꽃 나눔과 메시지존, 포토존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또 4월 6일 (토) 오후 6시 전시관에서 각 활동의 주요 역할을 맡은 마을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와 10년간의 동행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 전시는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획되고 제작 비용은 모금으로 운영된다. 크라 우드펀딩을 통해 후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소셜펀치 후원함 <https://www.socialfunch.org/416civicexhibit>

(KIN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긍정언어학의 시대

긍정언어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새로 설정된 학문 분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모임에서 만든 학문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언어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언어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 번역이나 통역의 수준이 몰라보게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향후 통번역 성장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며,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하지만 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언어교육학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자동 번역과 통역의 시대에 과연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취업이나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언어학에서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대규모 언어자료 수집이나 통번역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응용언어학으로서 언어교육학은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불안이나 정신질환 등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심리학을 열었다. 마음챙김, 알아차림, 웰빙 인지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논의는 언어학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를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언어의 공부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긍정언어학은 긍정심리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학에 응용한 분야이다. 긍정언어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한 언어교육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해서 언어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를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국어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전수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인류의 지적 성취를 배우고, 이를 소화하여, 후세에 전하는 역할이었다. 당연히 의사소통보다는 읽기와 쓰기 중심의 언어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문은 배웠지만 읽고 쓸 수 있었을 뿐, 다른 나라 사람과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필담이라는 형식은 그래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인류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언어교육은 단순히 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서 숨 쉬게 된다. 이는 문어가 아닌 구어에 교육의 초점이 옮겨감을 의미한다. 말하기, 듣기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예전에 문어 위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읽기와 쓰기에는 능하지만 구어의 사용에서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구어 의사소통의 시대인 것이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은 주로 구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많은 부담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결되면서 문어든 구어든 더 이상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이 적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향후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은 '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긍정언어학과 관련이 된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의사소통뿐 아니라 행복감을 준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조사해 보면 대부분 행복감이 올라가고, 삶의 우울함이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몇 가지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는 의미있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의 중년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해소되고, 행복감이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가 취미인 학습자일수록 즉, 학습의 부담이 적을수록 행복감은 올라간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학습자를 조사해 본 결과도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긍정언어학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학습자 간의 활동, 치유의 말하기와 글쓰기, 좋은 글 읽기 등 많은 긍정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긍정언어학의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2024 году в первый класс пойдут около 3 тысяч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24 году впервые в школу пойдут около трех тысяч дете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Родители могут записать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в одну из 27 школ, действующих в городе.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пройдет с 29 марта по 30 июня, о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на закрепленной за школой территорией. Второй этап длится с 6 июля по 5 сентября, в этот период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друг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несколькими способами: через Госуслуги, портал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слуг АИС «Е-Услуги. Образование», операторов почтовой связи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аказным письмом с уведомлением о вручении, либо же лично.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следует 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ам телефонов 312-687 (доб. 3), 312-687 (доб. 1).

노글리키에서 <경찰과 아이들> 낚시대회가 열려

노글리키 지역에서 <경찰과 아이들> 활동의 일환으로 낚시대회에 3개 학교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노동의 깃발' 간행물의 기자가 전했다.

참가 1팀당 10명으로 구성되어 먼저 한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을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낚시 시간은 1시간 연장되었다.

"낚시대회 결과 1호 중등학교가 우승을 차지, 2호 중등학교가 2위, 김나지아가 3위를 차지했다. 개별 경쟁에서는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브가 1위, 막심 단첸코가 2위, 키릴 비류코브가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우승자들에게는 상품으로 피크닉 주방, 해먹, 낚시용 의자와 테이블을 수여했다.

В Ногликах прошел турнир по рыбной ловле «Полиция и дети»

В Ногликах ученики трех школ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рыбной ловле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олиция и де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журналисты издания «Знамя труда».

В каждую команду входило десять человек.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ловить рыбу час, но по просьбам ребят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лили на столько же.

«В итоге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обедила СОШ № 1,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СОШ № 2, на третьем – гимназия.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первенствовал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 вторым стал Максим Данченко, «бронза» – у Кирилла Бирюков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бедителям вручили призы: летнюю кухню, лежак-гамак, стол и стульчик для рыбалк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유치원생 의상 경연 스키대회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와 교사들이 <유치원 경쟁> 가장 의상 입기의 일환으로 스키 경주에 팀별, 개인별로 참가했다고 사할린주 교육부가 전했다. 행사가 '트리움프' 바이에슬른 스키단지에서 진행된 가운데 경기 결과 '야고트카' 유치원이 금메달을 땀고, '레보두쉬키' 유치원이 은메달, '마트료슈카' 유치원이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주지 측이 전했다. 또한 최고의 의상에 대한 상도 수여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костюмированная битва детских сад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тсадовцы, их родители и педагоги в рамках костюмированной «Битвы садов»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командных и личных забегах на лыж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м комплексе «Триумф». «По итогам гонок золото завоевал детский сад «Ягодка», второе место у «Лебедушки», бронзовыми призерам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трёшк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призы вручили за самые

яркие костюмы.

사할린에 백조들 날아와 봄을 알려

네벨스크 지역 주민들이 2024년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큰 백조들을 보게 되었다. 지난 주말에 '낚시인 사할린65' 텔레그램을 통해 흰 백조들을 촬영한 사진이 올랐다.

낮에는 + 4도, 밤에는 -7도로 거리에는 아직 날씨가 서늘하지만 날아든 백조는 봄이 가까움을 느끼게 했다. 일반적으로 큰 백조는 사할린 남쪽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늦게 날아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3월 28일부터 31일쯤에 날아왔다. 이투루프 해안 부근에서는 첫봄이 되는 3월의 초순에 자주 볼 수 있다. 백조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코르사코브의 솔로비예브카 구역 해안과 네벨스크와 오후초코예 해안가다.

사람들은 백조가 날아온 것은 봄이 벌써 왔다는 믿을 만한 징표라고 여기고 있다. 큰 백조는 사할린주에서 수렵 금지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Весна пришла: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ели лебеди

Жители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ервыми на Сахалине в 2024 году встретили лебедей-кликун. Фотографии с белоснежными птицами появились в Telegram-канале «Рыбаки Сахалина_65» на прошедших выходных.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 улице еще довольно прохладно, днем около +4, а ночью ниже -7 градусов, лебеди уже почувствовали приближение весны.

Обычно кликуны прилетают на юг Сахалина чуть позже. Например, в 2022 и 2023 годах эти птицы прилетали в период с 28 по 31 марта. Однако у берегов Итурупа их часто видят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первого месяца весны.

Их излюбленные места — побережье в районе Соловьевк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а также Невельск и Охотское.

В народе есть приметы, что прилет лебедей — верный признак того, что весна уже наступила. Напомним, лебедь-кликун занесен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